



# 정책현장탐방

• 맞벌이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다 : 시흥시 워킹맘 · 워킹대디지원센터

## 맞벌이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다: 시흥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전국 6개소의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sup>1)</sup>.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상담 및 생활 정보 제공, 부부 및 육아교육, 직장 고충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였다.



박성희 센터장

일·가정 양립은 개인, 기업,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

일시 : 2015년 12월 24일(목) 14:00

장소 : 시흥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인터뷰 대상자 : 박성희 센터장

###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오랜 기간 청소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적절한 지원과 시기가 되면 잦아드는데 반해, 이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환경 즉, 가정과 부모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 내재된 부부문제나 자녀양육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및 부부 상담 등 가족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맞벌이 가정의 욕구가 높았고, 여러 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

<sup>1)</sup>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개소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는 2015년 4월 당진시를 시작으로, 구미시(5월), 시흥시(4월), 연제구(6월), 울산광역시(7월), 성남시(7월)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2015), “맞벌이 부부를 도와 줄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첫 개소”, 보도자료, 2015.4.23.).



다. 특히 야간 상담과 주말 프로그램의 확대 등 맞벌이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시흥시 워킹맘 · 워킹대디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그 간의 운영실적은 무엇인가요?

시흥시 워킹맘 · 워킹대디지원사업은 2015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소 중 1곳으로 지정되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킹사업팀은 사업전담인력 1명과 사업보조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만으로는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많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 워킹대디지원사업은 크게 **직장생활지원, 가족생활지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직장생활지원사업으로 4월부터 야간상담 및 주말상담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족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5명의 전문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직장고충상담**의 경우, 노무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한부모 자조모임, 맞벌이부부자조모임 및 공동활동지원**을 통하여 일하는 엄마 · 아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개의 기업에 찾아가는 근로자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생활지원에서는 임신 · 출산 · 자녀양육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교육 등 다수의 일하는 엄마 · 아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캠프, 워킹맘워킹대디힐링워크숍, 슈퍼대디가사교실, 분노치유프로그램,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50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약 18,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센터의 프로그램 중 참가자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워킹맘 · 워킹대디 가족의 날’ 사업으로 ‘가족사진퍼즐맞추기 대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회 차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총 196가족 552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사진을 퍼즐로 제작하여 행사당일에 온가족이 모여앉아 가족사진퍼즐을 맞추는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족들이 행사당일 모여앉아 퍼즐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협동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캠프 참가자



부모교육 과정



3차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의 날



2015년 퍼즐로 보는 센터사업

**센터 운영을 통해 체감하는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일하는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센터의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맞벌이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자녀의 돌봄 해결과 진로문제**입니다. 저학년 아이의 방과 후 돌봄과 방학기간 중 식사 해결을 위해 학원을 보내는 사례가 많았으며, 늦은 퇴근 후 가사 일에 대한 부담으로 반찬지원을 해주느냐는 문의도 종종 있었습니다.

초등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 여덟시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놀이·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숙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용자의 욕구분석을 위한 시범기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같은 센터 내 사업 인프라와의 결합 프로그램 개발은 추후 타 워킹맘워킹대디지원 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같이 경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가사노동 및 양육활동 부담 정도가 여성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센터에서 시행하는 부모역량 강화교육 참여자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어머니



들게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워킹맘 힐링캠프’를 진행하여 워킹맘들이 1박2일 동안 가정에서 벗어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인기가 많은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도록 기획하여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관계악화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워크숍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여 맞벌이부부의 소통교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제고를 돕고, 리마인드칭혼을 기획하여 평소 바쁜 일상으로 마음을 나누기 힘들었던 맞벌이부부에게 서로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센터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과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 내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및 원활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 대상 서비스 이외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업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예, 기업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센터에서는 먼저 재)시흥시산업진흥원과 시흥시기업인협회, 한국노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근로자 종합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고충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삼립식품 및 롯데마트 시화점과의 연계를 통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제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문화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워킹맘 · 워킹대디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본 센터 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확대가 필요할지, 또 역할 확대를 위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제도적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을 꾸리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저희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이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 및 돌봄 부담이 여전히 워킹맘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가정과 일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가족의 가치와 양성평등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포함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환기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센터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식적 협력체계 모색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